

제6절 진북리(進福里 : 1·2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백연산(白蓮山)의 지맥(支脈)이 동남쪽으로 뻗어 마을 뒤를 둘러싸고 있고 마을 앞은 동해(東海)다. 서쪽은 매화면 금매리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남쪽은 오산리 무릉(武陵)과 접하고 북쪽은 산포리(山浦里)와 인접해 있다. 마을회관은 2005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008년에 진북리보건진료소가 건립되었다. 최근에 해안을 중심으로 펜션이 다수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마을 뒷산이 진북봉(進福峯)이므로 진북리(進福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진북1리인 오원(梧原)은 1550년경에 광주 노씨(光州盧氏)가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마을 뒷산 언덕에 오동나무를 많이 심었다 하여 오원(梧原)이라 하였다.

진북2리인 동정(洞庭)은 호수(湖水) 같은 바다를 둔 이 마을의 전경(全景)이 중국의 양자강 기슭 동정호(洞庭湖)와 비슷하다 하여 동정(洞庭)이라 부르게 되었다. 동정마을은 홍촌(洪村)과 최촌(崔村), 맞불, 셋불로 이루어져 있다. 홍촌은 1510년경에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처음 개척하여 살았고 그 후에 남양 홍씨(南陽洪氏)가 1700년경에 입주하여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하여 홍촌(洪村)이라 한다. 최촌은 1700년경에 경주 최씨(慶州崔氏)가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지금은 28가구가 살고 있으므로 최촌(崔村)이라 한다. 맞불은 1740년경에 파평 윤씨(坡平尹氏)가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셋불 역시 1800년경에 파평 윤씨(坡平尹氏)가 개척하여 살고 있다.

1959년 9월 16일 ‘사라호’라는 큰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안을 거쳐 동해 남부를 강타했다. 이 태풍은 1900년 이후 3번째로 강력한 태풍이었다. 이 태풍은 중심 최저기압 905mb, 중심 최대풍속이 85m/s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이 발생했다. 또한, 부상 2,533명, 농경지도 21만 6,325정보나 유실되었다. 이재민 37만 3,459명, 선박 피해 9,329척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울진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근남면 산포리 일대는 바닷물 해일과 왕피천 하천수가 합쳐져서 육지로 역류하는 바람에 산포 마을 일대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제방이 무너져 유실되는 바람에 농경지와 하천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자갈밭으로 변했고, 주택들도 모두 허물어지거나 중수해서 사용할 형편도 안 되었다. 학교나 동사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행정관서에서 나누어 주는 구호품 몇 가지로 연명하는 처지였다. 제방이 모두 무너지고 떠내려가

는 바람에 토지와 하천의 구분도 없이 자갈밭으로 변했다.

행정관서에는 이재민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중 강원도 철원군에서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DMZ 개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곳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지금까지 황무지 상태로 버려진 땅인데 개간하기 힘들었지만 넓은 농토의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철원은 옛날 궁예가 태봉국을 세울 만큼 비옥하고 광활한 평야 지대였다. 그러나 6.25전쟁을 겪으면서 지뢰밭이 되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되었다. 이토록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 개간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당장 생계 대책이 없던 근남면 주민들에게는 철원 DMZ 이주계획은 매우 희망적이었다.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관서에서는 이주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이재민들은 대대로 살아오던 조상의 뿌리를 등지고 낯설고 물설은 타지로 이주한다는 것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다.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주 희망자를 받아보니 66가구에 3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온 마을 사람들과 일가친척들의 눈물이 범벅된 환송을 받으며, 드디어 1960년 4월 4일 군용트럭에 가장 중요한 물품들만 챙겨서 이주하게 되었다. 이주민들은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고생하면서 마을을 개척했지만, 자신들의 뿌리인 고향은 잊지 말자는 뜻에서 지역 명칭을 철원군에 ‘근남면’으로 지었고, 가끔 고향 마을과 교류하고 있다. 또한 서울재경군민회에도 가입해 ‘근남면민회’ 행사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²

3. 가구 분포

총 12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진북1리에는 72세대가, 진북2리에는 51세대가 살고 있다. 오원마을에는 김해 김씨(金海金氏), 평창 이씨(平昌李氏), 전주 이씨(全州李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평해 황씨(平海黃氏)가 주를 이루며, 동정(洞庭)마을은 남양 홍씨(南陽洪氏), 안동 김씨(安東金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등이 주로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봉수대(烽燧臺)

『고려사』, 『여지승람』에는 진북1리(梧原里)에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다고 전한다.

2. 김성준, 2020, 「마현리 사람들」